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APRIL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6



### 2025년 Golden Club 신년교례회 성황리 개최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뉴저지 Hasbrouck에 위치한 Hilton Hotel에서 2025년 Golden Club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총인원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홍종만 회장의 이임식과 제8대 김정필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으며, 행사 보고와 회계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임하는 홍종만 회장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기리는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올해 9순을 맞이한 김광현, 김익성 회원에게는 기념패와 선물이 증정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밤 운전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낮에 모였는데 회원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어서 진행된 미니 음악회에서는 아름다운 피아노 트리오와 바리톤 흥민

기의 열창이 앙코르를 받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만찬 후 디카프로오의 진행으로 열린 여흥 시간에는 윤선구 회원의 클라리넷 연주, 김은애(손갑수)의 클래식 기타 연주, 민준기 회원의 가곡, 이진구 회원의 열창 등이 이어져 흥을 더했다. 라플 시간에는 노년에 유용한 선물들이 제공되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준행 명예회장이 행사를 위해 대형 타월 100여 개를 기증했으며, 참석한 회원 가정마다 백 스트레처, 머그컵 2개, 땅콩 스낵 1상자 등을 선물로 받아 풍성한 마무리를 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 간의 화합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 4월24일 골프대회



2025년 첫 골프대회를 뉴저지의 명문 골프장 Sunset Valley에서 아래와 같이 열게 되었으니 모두 참석하셔서 전지훈련과 동계훈련으로 다지신 기량을 모두 발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4월 24일(목) 11시

**골프장:** Sunset Valley Golf Course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회비:** \$120

**저녁장소:** Alexis Steakhouse  
955 Valley Rd, Clifton, NJ 07013

**문의/ 참가:** 김병순 (703-407-4928)



### 이준행 명예회장 96세생일을 축하하며 (3월 15일)

오늘 건강하신 이준행 회장님을 뵈게 되니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이회장님과 우리 회원들과는 20년의 세월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회장께서 골든클럽 회장을 맡으시기 전 평회원으로 처음 참여하실 때 골든클럽 운영진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겠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후원금 지급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 정택수 회장님의 뒤를 이어 회장을 맡으신 후 골프모임에서 출발한 골든클럽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기쁨을 마련하시고 끊임없이 공헌하셨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모임을 넘긴 후에도 끊임없이 서울대학 동창회, 골든클럽, 또 기타 모든 분야에 격려와 후원을 계속하시는 이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건안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구심육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우리 모두 건배합니다.

•임호순(공대52)

## 4월10일 봄나들이 하이킹



집결장소가 불편한 분은 Trailhead로 직접 오셔도 되며, 참가하실 회원은 연락주십시오. 산행 마치고 근처 피자집에서 맥주 한잔 나누며 뒤풀이를 하겠습니다.

**일시:** 4월 10일(목) 9시

**집결장소:** PIP exit 4-5 중간 Commuter Parking Lot  
(GPS 좌표, 41.0282, -73.9388)

**Trailhead:** 9시 30분, (GPS 좌표, 41.2926, -74.0256)  
Anthony Wayne Recreation Area South Parking Lot

**준비물:** 등산화, 하이킹 폴, 음료수, 간식  
(뒤풀이) Pizza Mia Pasta (41.1893, -74.0372)  
14 Thiells Mt Ivy Rd, Pomona, NY

**문의/ 참가:** 홍종만, 646-342-2667

### 신입회원

**이름:** 전문준 (이난준)  
**영문:** Moon Joon Chon  
**학교:** 상대64  
**전화번호:** 917-455-7453  
**email:** chon2000@gmail.com  
**주소:** 164 Boulevard, Scarsdale, NY 10583



### 부음

최구진(약대54) 회원님께서 향년 89세의 일기로 3월 1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진은 장례에 참석하신 회원들)





Hilton Hotel에서 오찬을 즐기는 회원들



8대 회장단과 운영위원



Classical gitar를 독주하는 김은애(손갑수) 회원



9순패를받고 기뻐하시는 김광현 김익성 회원



Clarinet을 연주하는 윤선구 회원



라플 대상을 기증한 김광현 회원과 당첨되어 기뻐하는 김병순회원



신년교례에서 열창하는 바리톤 홍민기군(음대18)



3월16일 언더우드 오케스트라연주회에서 지휘하는 강혜미(김정필)

## 골든클럽 회장직을 마치며

■ 제7대 회장 홍종만

존경하는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새봄의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년교례회를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 클럽을 지탱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우리 클럽은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귀한 분들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고 최수용 선배님과 최철용 선배님의 사모님, 그리고 새롭게 골든클럽의 가족이 되신 전문준 회원님 부부, 오랜만에 뵙는 신진식 선배님 내외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낮 시간대에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주관한 김정필 부회장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골든클럽은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오랜 기간 동안 맡아온 총무, 사무총장, 부회장, 그리고 회장의 소임을 내려놓고 김정필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연한 리더십과 강한 책임감을 겸비한 김정필 부회장은 우리 클럽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김정필 회장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저는 이준행, 손경택 전 회장님, 정해민 상임고문님과 함께 골든클럽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변함없이 클럽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우리 클럽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골든클럽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새로 무거운 책임을 맡으면서

■ 제8대 회장 김정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Golden Club 회원 여러분. 새로 회장직을 맡게 된 김정필입니다.

먼저, 지난 27년간 우리 클럽을 이끌어오신 모든 선배님들과 특히 15년간 사무총장과 회장으로 헌신하신 홍종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홍 회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Golden Club은 110명에 이르는 든든한 공동체로 성장하며 뉴욕지역 서울대 동문 사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클럽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Golden Club은 그간 골프대회, 하이킹, 피크닉, 세미나, 골프 여행, 미술관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로 회원 간의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매년 3월 말 신년교례회로 시즌을 여는 전통은 앞으로도 소중히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제작해 회원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클럽의 활동을 더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둘째, 회장단이 젊어진 만큼 젊은 회원들을 적극 영입해 세대 간 조화를 이루고 활기를 더해보고자 합니다.

셋째, 야외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원로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방문이나 작은 모임을 마련해 모두가 함께하는 Golden Club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여러분의 참여와 조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골든 가족으로서 서로를 북돋우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5 골든클럽 신년교례회 건배사

■ 상임고문 정해민

존경하는 뉴욕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뉴욕 동창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새해에 들어와서 골든클럽의 전체 모임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간 오랜 기간 동안 골든클럽을 이끌어 주신 홍종만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홍 회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바통을 이어 받아 수고해 주실 김정필 회장께도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 싶이 우리 골든클럽은 동창회와는 별개로

자생적으로 탄생, 발전해 온 모임으로 이준행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회원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임은 자신을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회원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또또록 2025년, 이 한해에도 골든클럽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위하여 다 같이 축배를 듭시다.

제가 '건배!'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위하여!' 라고 큰 목소리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olden Club 신년교례회에 참석하고

■ 전문준(상대64)

지난 3월22일 Hilton Hotel 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 처음 참석하였고 홍종만 회장님으로부터 참석 소감과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보내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1964년 입학동기라고 반가워하면서 골든클럽 설명도 하고 회보도 보내주신 홍회장님 덕분에 Golden Club에 가입하여 취미활동을 함께 할수있는 좋은 선배, 후배 동문님들과 보다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번째 모임에 늦지 않으려 조금 일찍 도착하니 벌써 대부분의 회원이 참석하여 커피와 담소를 즐기고 계셨고 홍회장님이 나를 회원들께 소개시켜 주었는데 모두 선배여서 놀랍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회 순서에서 오랫동안 Golden Club 을 위해 헌신하신 홍종만회장이 바톤을 신임 김정필회장에게 넘겨주고 상임고문으로 계시며 임원진이 유임하게 되어 영속성과 젊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합니다. 올해 구순이 되시는 김광현선배님과 김익성선배님께 축하드리고 더욱 건강하시어 10년후에는 백수기념패와 천수기념패를 드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음악회는 모두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였고 음대 후배인 흥민기군의 매력적인 저음은 내고향 청산에 봄이 오는 느낌을 주어 좋았습니다. 노장의 저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신 Clarinet 연주, 기타연



주, 가수같은 노래솜씨들이 모두를 즐겁게 하였고 재치있는 사회자의 진행에 시간가는줄을 몰랐습니다. 한가지 바라고 싶은것은 나보다도 젊은 회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94학번 동문이 막내라고 들었는데 2000년 학번 동문들도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전문준 회원 본인소개]

저는 1964년 마포에 있는 송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능에 있는 상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졸업후 한국생산성본부 경제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년8개월간 상공부, 건설부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의 멤버로 일했습니다. 예컨대 건설부 용역으로 한국 주요도시간 도로건설/확장에 대한 수지분석, 즉 도로건설 비용 대비 교통량 변화에 따른 수익 (즉 원활한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감소 비교) , 따라서 어떤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보다 수익가치가 있느냐는 연구 보고서인데 그당시 OR(Operations Research)의 권위자이신 나웅배교수님(나중에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역임)께서 지도하여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건설부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1973년 8월 고려해운에 기획계장으로 입사하여 42년간 근무하면서 내 일생의 절반을 회사와 흥망을 함께하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을 우리는 산업화대통령이라고 칭송하는데 가난을 벗어나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 라는 기치 아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것 만이 살길이라고 “수출입국”을 부르짖으며 매월 수출진흥회의를 하고 수출제조업, 무역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운업 또한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서 외화가득 면에서는 그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선박이 미국이나 유럽에 취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이 없어서 일본 주요항구까지 작은 휘더선박으로 운송한후 외국의 대형선박에 환적시켜 수송할수 밖에 없었는데 스페이스 부족으로 일본 물품이 먼저 선적하게되어 수출차질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물론 부산항의 시설부족, 대형선박부족, 수출물량부족, knowhow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선박확충을 위해 계획조선을 통한 조선업, 해운업 지원, 상업차관을 통한 선박도입 등 70년대부터 해운업은 활황을 이루었고 고려해운도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풀컨테이너 4사 원칙을 세워 미주서안 태평양항로에 고려해운, 한진해운, 대서양항로에 해운공사(후에 대한선주 → 한진해운 →현대상선에 흡수합병), 유럽항로에 조양상선(후에 파산), 해운공사 만이 운항토록하여 과당경쟁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1981.2 - 1985.4 초대 뉴욕사무소장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초 부터 전세계적으로 해운불황이 시작되어 운임이 절반으로 하락하여 많은 선사들이 파산위기에 몰려서 정부는 “해운산업합리화 정책”을 도입하여 선사들의 통폐합작업을 유도하였습니다. 고려해운도 1985.9 회사를 현대상선에 넘기고 한국/일본 소형컨테이너 선사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내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는 2004.2 고려해운 대표이사 사장과 2011 고문을 마치고 2015.8 방계회사 KMTC Logistics 회장을 마치고 42년간 고려해운에 근무하였습니다. 다행히 고려해운은 매년 착실히 사업영역도 확대하고 수익성도 월등하여 40년째 유일하게 연속 흑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성장률 최고, 수익율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기점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항로의 최강자가 되었으며 2023년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운업은 특징이 선박확보를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한 자본집약 산업이고 항상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서 부침이 빈번한 업종이며,태극기를 게양하고 외국항구에 기항하면 국적선박은 그 자체가 국력과 영토확장의 의미도 있으며 수출증진에 꼭 필요한 업종이고, 비상시에는 국방력의 일부 임으로 매우 중요한 업종인데 오랜 동안 일원으로 일한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Longwood Gardens 여행 계획 (7월 31일)

**일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아래 세부 일정 참조)

**참가비:** \$50 (교통편 - 49인승 버스대절, 입장료, 점심 및 간식 제공)

### 일정

**오전 8시** 플러싱 한양마트 출발

**오전 8시 50분:** 포트리 한남체인 출발

**11시 20분** Longwood Gardens 도착 ; (약 120 miles, 운전시간 2시간 30분)

**11시 30분 - 12시;** Guide Tour by Longwood Gardens (Conservatory Tour 예상)

A summer highlight with giant waterlilies in full bloom (오른쪽 수련에 대한 설명 참조)

**오후 12시 - 1시** 폭포와 산책로가 있는 Hillside Garden에 있는 Picnic Area 에서 Carillon 소리를 들으며 점심을 드시며 원하시는 분들은 20미터 높이의 Chimes Tower에 올라가 공원을 내려다 보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1시 - 1시 45분** - Fountain Performances 관람 & Topiary Garden, 주위의 Topiary Garden, featuring whimsical, sculpted evergreen trees 둘러 보고.

**1시 45분 - 2시 30분** - Italian Water Garden & Flower Garden Walk ,Peirce's Woods Walk

**2시 45분** Longwood Gardens 출발

**5시 15분** 한남 체인 도착

**6시 30분** 플러싱 한양마트 도착

### 롱우드 하이브리드(Victoria lily, Longwood Hybrid)



롱우드 가든의 자랑인 빅토리아 수련 (Victoria waterlily) 에 대한 역사를 알고 감상하면 더 매혹되지 않을까요?

빅토리아 수련은 1801년 볼리비아에서 처음 발견했고 유럽으로 옮겨졌습니

다. 1852년 최초로 꽃이 핀 Kew식물원을 방문한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기 위해 Victoria lily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두가지 원종이 있는데 이 두 종류가 1950년대에 롱우드로 옮겨졌습니다. 롱우드의 수생 식물 전문가가 두 종을 교배하여 세 번째 빅토리아 백합인 롱우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매우 특이합니다. 꽃봉오리가 맺어지면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는 파인애플, 오렌지, 재스민을 연상시키는 아열대 향으로 곤충을 끌어 들이기 위해 피어납니다. 백합은 암꽃으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 밤에 수꽃으로 변하고, 이때 흰색에서 장미 분홍색으로 색이 바뀝니다. 세 번째 날에는 분말이되어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씨앗을 키우고, 씨앗은 성숙하면 떠 다닙니다.

빅토리아 수련은 열대 지방의 더위와 습도가 필요해 북부에서는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롱우드에서는 늦은 겨울에 씨앗으로 시작하여 5월 말에 물에 잠긴 화분에 심습니다. 롱우드의 따뜻한 연못에서 빠르게 자라며, 물은 항상 86도로 유지됩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연못에서는 9월에 수온이 낮아지면서 자라지 못하지만, 롱우드에서는 난방 시스템 덕분에 11월 말까지도 잘 자랍니다.

이 환상적인 롱우드 하이브리드 수련은 원래 품종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뚜렷하고 화려한 밀반침이 있어 매년 여름 롱우드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리 이영범)



## 시련을 통한 새로운 도약

## 성기로 (약대 57)

## 어린 시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나의 어린시절은 찢어 지는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온양 경찰서에서 경찰 근무를 하다 송악면 파출소장까지 하시고 급성 간염에 걸리시어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가족이 모두 이사를 하여 요양/치료를 받으셨으나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4남매를 부양하기 위하여 혼자서 온양으로 가서 행상 등으로 살림을 보태고 누님과 2명의 누이 동생 그리고 나는 뽀뽀이 흠어져서 살게 되었다. 625의 발발로 누님과 나는 온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시골 할아버지 댁 근처의 국민학교 5학년까지 마친 후 6학년은 온양온천국민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어렵게 다닐 수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때 서울의 친척의 도움으로 서울대 약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 청년 및 젊은 시절

서울대 졸업 후 해군약제장교로 5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 명륜동에 약국을 시작하였다. 결혼도 그 즈음에 하게 되었다. 처음 약국에서 한번 옮긴 약국의 위치가 좋아 약국 영업이 아주 좋았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쉼 없이 5년간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나중에 Burnout으로 인한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약국 문을 닫게 되었다. 백약이 무효하여 무기력하게 있던 중에 처형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불면증 치유를 얻게 되었다. 약국을 정리하던 때에 미국에서 약사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뉴욕주의 경우 외국 약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1년 인턴 과정을 거치면 약사 자격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기에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다.

## 미국이민생활

1973년 우리 가족들 모두 미국행 비행기를 타서 New Jersey에 도착하게 되고 필립스버그라는 작은 마을에 미국에서 첫 동지를 틀었다. 주변에 남침례교회 소속인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목사인 Ruth목사님을 포함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주었던 미국인 성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미국에서 순조로운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인턴 생활을 위하여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어렵게 인턴과정을 마친 후 약사면허시험을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뉴욕의 병원약국에 취직을 하였다. 미국에서 공부하여 교수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꿈이 있었기에 St. Johns 약대 대학원 제약과에 입학하여 공부와 일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병이 심하여 공부에 열심으로 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졸업시험에 낙방하는 절망을 겪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담당 교수님과 상담하여 졸업할 수는 있었다.

## 시련

교회 자매님의 소개로 한국에서 오시는 한 분과 동업으로 약국과 기독교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교회 장로로서의 직분과 새로 벌인 사업을 모두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한없이 나락으로 빠졌다. 어느 하루 거울을 보니 눈과 입이 45도 비뚤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몸도 성치 않았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 나를 간호하였고 사업은 동업자에게 넘겨 부담을 덜어 내어 회복이 되었다. 동시에 아내도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 새로운 도약

모든 자금을 투자했던 사업을 실패로 끝나버렸기에 무일푼이었던 나에게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의 도움으로 프리싱의 뒷골목 외진 곳에 스마일 약국을 시작하게 되었다. 겨우 연명하던 약국에 교회의 한 자매



님의 경제적인 도움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다. 지리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의 약국이었지만 건강이 회복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약국이 성공하게 되고 소문난 약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뒷골목 약국에서 5년 운영 후 지리적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전부터 쌓아왔던 좋은 명성과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이전에 비하여 엄청 나아진 약국 성적을 받게 되었다.

## 은퇴 및 선교적 삶

하나님의 은혜로 22년의 약국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0세가 되던 해에 은퇴하였다. 은퇴 이후 선교에 많은 힘을 쏟기로 하고 처음에는 안경사역을 위하여 검안하는 법을 배워 5년 동안 선교지에서 검안 및 난시 등 안과 치료를 돕는 사역을 하였다. 안경사역 이후에 침술사역을 위하여 76세에 한의대에 입학하여 4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80세에 한의사 면허증을 얻었다. 졸업 후 6년동안 선교지 등에서 침술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밀림지역에 가서 행한 원주민을 향한 선교 사역은 힘들지만 오지의 미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니카라과와 과테말라 치셱 단기 선교, 아이티 단기 선교 및 한국 선교사 이기열 선교사의 사역지 방문 등의 선교여행을 통하여 바울사도의 지독히 어려운 선교적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선교의 열정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자녀 및 건강

미국 올 때 5살이던 큰 딸은 소아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3살이던 작은 딸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중 13살 아들 돌보느라 잠시 일을 중단하고 있으며 미국 올 때 1살이던 아들은 목사로 주의 일을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2024년 겨울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80년 이상 골프 등으로 혹사했던 무릎 연골이 닳아서 인공연골을 삽입하는 수술이었다. 2025년 봄부터는 골프를 칠 수 있게 하는 희망으로 지난해 겨울에 수술을 시술하였다. 시술하기 전 2주 전부터 Physical Therapist로부터 준비를 위한 치료를 한 후 수술을 하였고 시술 후 2주 동안 Physical Therapist가 왕진 치료를 받은 후 통원으로 2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니 의사로부터 앞으로 조심하라는 조건부로 치료로부터 졸업할 수 있었다. (정리 김병순)

회원 명단 (110명 / 2025-3-25)

강교수	김영덕	손갑수	윤재욱	임도혁	한민우
강에드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임호순	한영오
강영선	김우영	손대홍/	윤현남	전문준	한용우
계동희	김의성	남종현	이강홍	정도현	한태진/
고애자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용희
곽선섭	김창수	송근숙	이상무	조달훈/	허용웅
권문웅	김충정	송용길/	이상원	조승자	허유선
권정덕/	김치갑	송현자	이승준	정해민	홍정표
홍선경	김태일	송학린	이 준	조상근	홍종만/
홍선경	김한중	송혜순	이대연	주상선	홍예경
권대진	김현중	신두식	이대영	주재양	
금영천	노승만	신진식	이영범	진봉일	
김광수	노용면	신응남	이용대	천병수/	
김광현	민준기	오순문	이위곤	천종화	
김동건	박기환	오용호	이전구	최병우	
김문경	박상원	오인석	이종대	최순채	
김문언	박준구	우규환	이종석	최준희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이준행	최진영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이행순	최한용	
김승호	성기로	윤상영	이홍빈	최하주	

골든클럽 2025년 행사 일람 (2025-3-25)

3월	13(목)	하이킹 (취소)
	22(토)	신년교례회 (82명 참가)
4월	10(목)	하이킹
	24(목)	골프대회-Sunset Valley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 Pelham
6월	12(목)	Summer Picnic (Alpine Pavilliom)
	26(목)	골프대회
7월	17(목)	골프대회
	31(목)	Longwood Gardens Tour
8월	14(목)	골프대회
9월	11(목)	골프대회
10월	9(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16(목)	하이킹
	30(목)	골프대회
12월	6(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7-13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1(토)	2026년 신년교례회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49명 / \$4900 /2025-3-25)

강에드	민준기	이상무	최준희
곽선섭	박기환	이승준	최한용
권문웅	박희병	이영범	한민우
권정덕	배상규	이위곤	한용오
홍선경	성기로	이전구	홍정표
금영천	손갑수	이종대	홍종만
김문언	손경택	이홍빈	홍예경
김상만	송근숙	이행순	
김승호	신두식	임호순	
김의성	신진식	전문준	
김정필	오용호	정수일	
김충정	우규환	정해민	
김한중	윤상영	조상근	
김현중	윤선구	주상선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20명 / \$10,300 2025-3-25)

강에드 300	손경택 1500	임호순 300
권정덕 500	신진식 300	전문준 500
금영천 300	오용호 300	정해민 2000
김상만 100	이위곤 100	최준희 300
김옥수 200	이전구1000	최한용 500
배상규 200	이종대200	홍종만 1000
성기로 500	이행순 2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전문준

발전기금 기부명단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변경사항만 기재)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박상원 (음대69)
- 성기로 (약대57)
- 오인석 (법대58)
- 유무영 (공대66)
- 진봉일 (공대50)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입회비 \$200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연회비 \$100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후원금 (\$) \_\_\_\_\_ )

주소 (Home): \_\_\_\_\_